



장용석 추천 '월드 뮤직 10선'

- 생에 감사해(Gracias a la vida) 칠레의 비올레타 파라라 원곡이지만 메르세데스 소사와 조안 바에즈가 불러 더 유명해진 곡.
- 올란다(Yolanda) 쿠바의 누에바 트로바 운동을 주도했던 파블로 밀라네스의 대표곡.
- 맘보 시누엔도(Mambo Sinuendo) 부에나 비스타소스클럽 멤버 기타리스트 마누엘 갈반, 프로듀서 라이 쿠더가 함께 만든 아프로 쿠반 리듬의 앨범.
- 마틸다(Matilda) 칼립소 음악의 선구자 해리 벨라폰테를 세계적으로 알린 대표곡.
- 기차는 8시에 떠나네(To Treno Fevgi Stis Okto) 그리스 미키스 테오도라키스 곡으로 아그네스 발차와 마리아 파란투리 버전이 사랑을 받았다.
- 라 요로나, 우는 여인(La Llorona) 멕시코의 설화에 기반한 노래로 차벨라 바르가스가 불렀다.
- 에레스 투(Eres Tu) 70년대 월드뮤직을 대표하는 곡으로 스페인출생한 모세다데스의 대표곡.
- 달콤한 여름비(Sweetest Summer Rain) 스코틀랜드 뮤지션 아이네 퓨레이의 곡으로 켈트음악의 교과서 같은 음악.
- 안개이슬(The Foggy Dew) 원래는 아일랜드 이주민이 미국에 정착해 부른 미국민요.
- 작은 별무리(Un Monton de Estrellas) 쿠바의 농부출신 천재 음악가 펠로 몬타네스 곡으로 순수 포크음악의 정수.



“음악으로 소통...월드뮤직의 세계로 초대”

문화기획자 장용석 ‘파블로 아저씨, 음악과 연애결다’ 발간

재즈·탱고·레게 등 소개...8월 기획공연 ‘음악여행 유럽편’

“월드뮤직”이란 무엇일까. 조금은 낯설기도 한 ‘월드뮤직’은 말 그대로 전세계, 여러나라의 음악을 의미한다. 자메이카의 스카와 레게, 브라질의 보사노바, 아르헨티나의 탱고, 아프리카 대륙의 민속음악, 넓게는 한국의 케이팝까지도 ‘월드뮤직’의 범주에 들어간다.

최근 ‘월드뮤직’의 정의에서부터 세계인을 감동시킨 한 장의 음반에 얹힌 사연, 재즈·탱고·보사노바 등 다양한 음악장르들의 차이와 감상 포인트를 소개하며 어렵기만 했던 ‘월드뮤직’에 한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한 책이 출간됐다.

“파블로 아저씨, 음악과 연애결다”는 ‘월드뮤직’ (상상창작소 펴냄)을 다루면서 아바, 글로리아 에스파냐, 신중현, 나훈아, 최고은 등 다양한 뮤지션들의 음악과 소리산업의 전망까지 살펴본 책이다.

이 책을 쓴 문화기획자 장용석씨는 “라틴음악과 월드뮤직을 포함한 다양한 음악 장르와 음악들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주제적인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장 씨는 광주에서 오랫동안 문화기획자로 활동하며 광주정소년음악페스티벌, 광주월드뮤직 페스티벌, DJ와 떠나는 세계음악여행 등 다양한 공연을 기획해 선보여 왔다.

그는 ‘월드뮤직’에 대해 “1990년대 초 프랑스 파리에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이후 유럽 곳곳의 노천카페나 광장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공연장으로 삼아 음악이 연주됐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이런 음악을 ‘월드뮤직’이라고 불렀고 그때 본격적으로 월드뮤직에 대한 담론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책 제목에 등장하는 ‘파블로’는 중학교 때 동네 성당에서 멕시코 신부가 귀한 세례명 ‘바오로’에서 연유했다. ‘바오로’가 스페인어로 ‘파블로’고 남미 콜롬비아에서 유학하던 시절, 친구들이 그를 파블로라고 부르면서 그때부터 장 씨는 파블로가

되었다.

장 씨는 대학 신입생 시절 음악 동아리에서 처음으로 접한 ‘너는(Eres tu)’을 시작으로 월드뮤직의 길로 접어들었다. 음악동아리에서 라틴 음악을 비롯해 세상의 음악들을 배우면서 ‘월드뮤직’의 세계에 깊이 빠졌고 그는 결국 남미 콜롬비아로 떠났다. 쿠바 파블로 밀라네스의 ‘올란다’와 칠레 출신 비올레타 파라라 ‘생에 감사해’는 장 씨의 20대와 30대를 지배했던 화두이자 천착했던 삶의 방식이었다.

총 5부로 구성된 책은 그런 그가 유학시절부터 최근까지 오랜 기간 모으고, 읽고, 수집한 자료와 기록을 통해 갈망해 온 ‘음악세계’를 꼼꼼히 녹여내고 있다.

1부에서는 ‘동지여 영원하라’, ‘미사 크리오야’ 등 세계인을 감동시킨 음반에 얹힌 사연과 역사를 소개한다. 2부는 ‘월드뮤직’에 대한 정의와 소개, 재즈·탱고·보사노바 등 ‘문화유산’이 된 월드뮤직을 다룬다.

3부에서는 ‘맘보킹’, ‘점밀밀’, ‘치코와 리타’, ‘7월 4일생’ 등 영화음악과 그와 관련된 뮤지션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4부에서는 그 시절 우리를 사로잡던 아바, 그리스의 국민음악가 미키스 테오도라키스, 싱어송라이터 최고은 등 이 시대 가객들을 소개하며 마지막 5부에서는 ‘소리풍경’이라는 개념을 끌어와 소리의 공공성, 소리산업의 전망과 현황, 지역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다룬다.

책의 말미, 부록 ‘음악 장르’에서는 록바의 한 장르인 ‘과관코’부터 쿠바 음악의 춤곡인 ‘차차차’까지 다양한 음악 장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장용석 기자 ej6621@kwangju.co.kr



빌리홀리데이



메르세데스 소사

명했다.

이 책을 펴내기 전에도 ‘라틴아메리카 시네마 다이어리’, ‘변혁의 라틴아메리카 현상’ 등으로 독자와 만나온 그는 이번 책에 다 실지 못한 내용들을 한데 모아 ‘파블로 아저씨, 음악과 연애결다’ 다음 시리즈로 펴낼 생각이다. 또 오는 8월에는 지난해에 이은 공연 ‘디제이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유럽편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불의에 저항하고자 했던 이들의 삶과 그 정신을 독자들이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김민화 작 '해운'

‘시원한 여름속으로’

금봉미술관, 3일부터 8월22일

휴대가 간편한 부채는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는 데 더 없이 좋은 물건이다.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부채는 플라스크 등으로 만들어진 것도 많지만 멋들어진 그림이 그려진 부채는 운치를 더한다.

사·서·화(詩·書·畫)의 매력이 담긴 부채그림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금봉미술관(관장 한상운) 여름 기획전 ‘하선방화, 산수(夏畵芳畵, 山水)-시원한 여름 속으로’가 3일부터 8월 22일까지 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전시에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국화가 42명이 참여, 부채에 직접 붓으로 그린 시원한 여름풍경을 선보인다. 선명화(부채그림)는 부채의 여백에 사·서·화를 담아 안부를 물었던 옛 선비정신의 산물이다. 그림부채는 누구나 가지고 다니며 감상할 수 있는 생활예술품으로 서로 선물로 나누기도 그만이다.

부채를 펼칠 때 등장하는 산과 계곡, 강, 바다 등의 풍경은 한 폭의 시원한 산수화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전한다. 작품작들은 수묵담채로 시원하게 풀어낸 우리강산의 다양한 표정을 선사한다.

참여작가는 박수민·김대원·박문수·박행보·백준선·양정숙·장찬홍·지용현·한상운·홍정호 등이다.

김민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

내일 서석당서 판소리, 산조무대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이 7월은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로 옮겨 진행된다. 오는 3일 서석당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판소리와 산조무대.

첫 무대는 이화림 연주자의 ‘김죽파류 가야금산조’로 섬세한 농현과 풍부한 저음이 특징이다. 공연에서는 ‘김죽파류 가야금산조’의 전 바탕인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휘모리-세산조시장단 순으로 진행된다. 이 연주자는 제13회 화순전국국악경연대회 일반부 종합대상 수상자로 현재 국악 POP그룹 ‘올라(Ola)’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어서 함승우 소리꾼의 ‘판소리 적벽가’가 펼쳐진다. 단가 ‘운담풍경’을 시작으로 적벽가 중 ‘머리 풀고~ 조자룡 활 쏘는 대목’을 들려준다. 함 소리꾼은 제3회 곡성통일전국종합예술대전 종합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광주 시립창극단 비상임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공연은 대면·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20명 관람 가능하다. 전통문화관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온라인 생중계 관람도 가능하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가 7명의 유쾌한 선물 ‘환하게 밝게 아름답게’

10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유쾌한 삶을 위하여’

무등현대미술관(관장 정송규) 특별기획전 ‘Smile Again : 환하게 밝게 아름답게 Gwang-ju 2021’전이 오는 10일까지 열린다.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위트 넘치는 작품을 선보이는 기획으로 살대시 미소 짓게하는 그림과 조각 등을 만날 수 있다.

전시에는 모두 7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고근호 작가의 ‘비오는 날’은 화투 이미지를 활용해

로봇 캐릭터를 표현한 작품이며 김왕주 작가의 ‘바람불어 좋은 날’과 ‘인생의 회전목마’는 행복한 기운이 물씬 풍기는 화사한 색감이 돋보이는 그림이다.

송영학 작가의 ‘이상과 현실’과 ‘태몽’은 사슴, 강아지, 용 등 의인화 된 동물들의 일상을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메시지를 전하며 화산 석촌박물관 관장이자 수집가인 오순영 작가는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수석 작품인 장수하는 거북이 형상을 한 ‘천년의 영감’과 ‘지식과 끝’을 통해 통해 희망을 전한다.

이대에 작가의 ‘복대지들의 작은정원’은 복과

풍요의 상징인 돼지의 이미지를 통해 웃음과 행복을 발신하며 이조흠 작가는 거대한 인물과 작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영상 작품 ‘3types of humans- halo’와 설치 작품을 통해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동훈 작가는 목각인형 피노키오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냉정과 열정 사이’는 현대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피노키오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들려주며 미키마우스 등이 등장하는 ‘보고싶은 친구들’은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김민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동훈 작 '보고싶은 친구들'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